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을 하루 앞둔 11일 영암군 삼호읍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이탈리아 토로 로쏘팀의 메카닉(차량정비사)들이 최종 점검을 마친 머신(경주차)을 서킷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 F1 극한질주 시작됐다

지구촌 '스피드 축제' 개막 3일 열전 사이·민속음악 공연 부대행사 풍성

지상 최대 '스피드 축제' F1 코리아 그랑프리(12~14일)의 막이 올랐다. 영암 서킷에서 열리는 이번 F1은 12일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사흘간 열전에 돌입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종합 순위 경쟁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2·3면> 3회 대회를 맞는 올해부터는 TV 중계권료와 원천세를 내지않는 등 비용 230억원 가량을 줄였고, 경기 운영을 조직위가 직접 맡는 등 한국인의 힘으로 대회를 치르려 했다. 또 입장권 가격을 대폭 할인하며 'F1 대중화'를 선언한 이번 대회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연맹)의 시험주행이 계속됐다. 이날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드라이버들은 승리 의지를 불태웠고, 조직위는 시설과 교통, 숙박, 관객 서비스 등을 점검했다. 순위 경쟁도 치열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해 챔피언 페텔과 올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알폰소는 누적점수 4점차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의 눈도 영암으로 쏠리고 있다. 영국BBC, 국내 주요 신문사 등 국내외 취재진 400여명이 미디어 등록을 마치고 F1의 열기를 전 세계에 전파할 준비에 들어갔다. 관람객 맞이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숙박시설은 결승전을 기준으로 필요 객실 2만9000실에 4만2000실을 확보했고, 교통도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임시개통했던 목포대교와 목포~광양고속도로, 대불산단 진입도로 등이 완전 개통돼 관람객 이동이 더욱 수월해졌다.

올해는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싸이가 결승전이 펼쳐지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6시부터 영암 F1경주장 상설블록 콘서트장에서 '싸이 F1 특별콘서트'를 여는 등 문화 행사도 풍부하게 마련됐다. F1 기간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내외 20여 개국 50여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도 열린다. 또 입장권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등 이번 대회는 'F1 대중화'로 가는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람객 16만명을 목표로 입장권 가격을 46만 원에서 올해 32만 원으로 내리고, 1만원짜리 금요일권을 신설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프로모터를 조직위가 맡고, 경기위원장 등도 한국인이 맡아 한국인의 힘으로 치르는 첫 대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F1 일정 및 순위별 포인트

| 구분 | 날짜 | 시간 | 순위 | 포인트 |
|-----------|-------------|-------------|----|-----|
| 연습주행1(P1) | 10월 10일 | 10:00~11:30 | 1 | 25 |
| 연습주행2(P2) | 12일(금) | 14:00~15:30 | 2 | 18 |
| 연습주행2(P2) | 13일(토) | 11:00~12:00 | 3 | 15 |
| 1차 예선 | 14:00~14:20 | 4 | 12 | |
| 2차 예선 | 14:27~14:42 | 5 | 10 | |
| 3차 예선 | 14:50~15:00 | 6 | 8 | |
| 결승레이스 | 14일(일) | 15:00~ | 7 | 6 |

영암 F1 서킷 날씨

| 날짜 | 날씨 | 구름 | 조금 |
|-------|----|-------|----|
| 12(수) | ☀ | 7/22 | |
| 13(목) | ☀ | 10/23 | |
| 14(금) | ☀ | 10/23 | |

한편 이번 대회는 MBC와 SBS-ESPN을 통해 14일 오후 3시 결승레이스를 생중계로 볼 수 있으며, 주관 방송사인 MBC에서는 12일 오후 2시 10분 연습 경기, 13일 오후 1시55분에는 예선 경기를 생방송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하라

전국시도지사 공동선언문 발표...헌법개정 등 촉구

전국 시·도지사들이 11일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과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선언문에서 "중앙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채택했음에도 중앙집권적 제도와 행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추진체계 재구축과 관련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축, 대

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역할 강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분권과제의 제도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조세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 폐지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을 제시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비율 대폭 확대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경감·포괄보조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재정부담의 지방전가는 문제가 매우 크지만, 영유아 무상보육을 중단해서

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복지이므로 내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공동세' 도입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현재 2할(재정)자치·3할(사무)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공동세 형태로 운영하고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 살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박준영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후임인 제6대 회장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선출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김치축제 내일 개막

5일 동안 54개 행사
어린이 김치축제도

'제19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오는 13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광주중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계가 열광하는 Say Kimchi!'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김치문화축제에서는 전시와 공연, 아카데미, 체험행사 등 총 54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치의 세계화·산업화'를 지향하며 시민참여 축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참여범위도 광주에서 전남 54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치의 세계화·산업화'를 지향하며 시민참여 축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참여범위도 광주에서 전남 54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치의 세계화·산업화'를 지향하며 시민참여 축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참여범위도 광주에서 전남 54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를 증명하는 이벤트도 펼쳐진다. 시민참여를 위해 '자치구 시민한마당'을 예년보다 풍성하게 운영하고, 매일 밤 대규모 공연도 펼쳐져 가을 밤 축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국내 음식 축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올해의 김치 콘테스트'도 오는 16일 열린다. 올 경연은 '김치제조업체' 부문과 '개인' 부문으로 분리됐으며, 숙성김치 심사를 추가했다. 전문가 평가와 '시민 맛 평가단'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치영양도시락 콘테스트, 시민 김치왕 콘테스트, 김치아카데미, 김치상으로 매일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의 재미를 더한다. 김치명인들로부터 배우는 '김치담그기 체험장', 전통두부 만들기, 꼬마메주 만들기, 김치초콜릿 만들기, 광주김치 퍼즐 맞추기 등도 펼쳐진다. 광주김치타운에서는 김치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어린이 김치축제'가 열린다. 5~7세의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김치타운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김치특공대 탐험여행을 비롯해 어린이 난타, 김치송 경연대회, 김치 간강나눔 콘서트, 김치쿠키 클레이, 김치 대형 퍼즐판 맞추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925-중-32057호

祝 증개축

www.hyundae-hosp.co.kr

광주현대병원
www.hyundae-hosp.co.kr

“ 넓고 쾌적한 새로운 환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00~오후 6:00
토요일 오전 9:00~오후 1:00
(응급실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주)

병원안내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91(용봉동)
북부경찰서와 용봉IC 사이
대표전화 : 062)570-0114
응급실 : 062)570-0119